



#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발행일 2017년 9월 15일 | 총권 43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강하2로 267 | 전화 02-720-7259 팩스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 달라진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독서교육 - '한 학기 한 권 읽기' -

2017년부터 교육과정이 달라졌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적용되고 있다. 2018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적용 될 것이고, 해마다 학년을 늘려가서 2020년에는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이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어과의 개정 사항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의 한글교육 강화', '연극수업 강화', '한 학기 한 권 읽기'이다. 초·중·고 공통 과목인 국어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 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 계발 역량을 기르고자 한다.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은 다양한 상황이나 자료, 담화, 글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드는 능력이고, 자료 정보 활용 역량은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의사소통 역량은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점 조정하는 능력이며, 공동체 대인 관계 역량은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며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문화 향유 역량은 국어로 형성 계승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 생산하는 능력이며, 자기 성찰 계발 역량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탐색하며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재능과 자질을 계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이 역량들을 기르기 위해서 국어과 내용이 구성 되어 있다. 그리고 독서교육이 제대로 되면 이 역량들이 저절로 길러질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독서교육과 관련하여 국어과에서는 교과서에 실린 과편적이고 분절적인 텍스트 읽기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지나치게 학습을 위한 독서를 강요해서 자발적으로 독서를 즐기는 평생 독자를 길러내는데 소홀했다는 반성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성취기준과 학습요소,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을 학기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수업시간에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글을 쓰는 통합적인 독서활동을 강조 하였다. 학생들에게 질 높은 독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인문 사회 과학 기술에 관한 기초 소양을 기르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려고 한다.

국어과 교과 역량과 연계해볼 때 학생들에게 핵심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수많은 정보를 가공하거나 재구조화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러한 점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단순히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 권의 책을 완독한다는 것은 다양한 책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나에게 필요한 책을 선택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읽기, 앞으로 나올 내용을 예상하거나 저자의 의도 추론하기,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기 등의 독서 활동을 모두 뜻한다. 그러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읽기에 필요한 모든 전략과 기능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학교 현장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적용하려는 교사들과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첫째, 학교도서관은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 둘째,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운영할 때 예상되는 우려는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셋째, 함께 읽을 책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가?
- 넷째, 어떻게 읽게 하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국어과 교육과정에 눈에 띄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고민에 대한 답이 해결되지 않고는 교육 현장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제대로 실천되고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답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동림** | 전국학교도서관모임 대표, 경남 제황초등학교 교사

###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학교 도서관 탐방

03\_ 이런 수업 어때요

04\_ 추천도서

### 추천도서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박영옥, 김동헌, 김지순, 문원림  
양재용, 오선경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요. 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

# <인문고전읽기> 용신초등학교 여름방학 독서교실

- 객정은(용신초등학교 사서)

우리 용신초등학교는 남양주 진건읍에 있는 전교생 392명의 작은 학교다. 학교도서관 푼터는 일년 내내 행사가 끊이지 않는다. 명예사서어머니들의 리딩맘 활동으로 매주 수요일 9시면 어김없이 1~2학년 학급에서 그림책을 읽어주신다. 세계책의 날 행사에는 책과 관련된 체험 행사를 3일 동안 진행하시는데 그 열의가 대단하셔서 전교생이 참여하고 있다. 또 인형극을 직접 공연하시고 인근 학교에도 가서 공연하실 정도의 실력을 갖추셨다. 9월에는 도서교환전을 통해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책들을 서로 바꿔보거나 학급문고로 기증하는 행사를 운영하신다. 또 일 주일에 2회 도서관에서 도서 배가를 도와주시는 봉사도 해주신다.

사서가 진행하는 행사로는 다대출자 응모권 추첨행사, 원작이 있는 영화상영 및 독후활동, 독서골든벨, 수시로 벌어지는 번개 이벤트가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재미있는(?) 책을 추천해주는 게 아닐까 싶다.

지난 봄 교육청 주관으로 수원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었던 인문고전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현재 역삼도서관에 관장으로 재직 중인 이아영선생님의 인문고전 사례 발표를 들었다. 눈이 번쩍 뜨였다고나 할까? 진짜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인성 교육이지 않은가. 사자소학, 명심보감, 논어 등 인문고전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실시한 사례 발표를 듣고 나도 한 번 해볼까 하는 욕심이 생겼다. 이아영 관장님은 초·중등 학교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다가 지금은 역삼도서관 관장에 대학 강의까지 하는 동분서주하는 대단한 분이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인문고전 프로그램을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해서 국무총리상까지 거머쥐셨다니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가히 짐작이 갈 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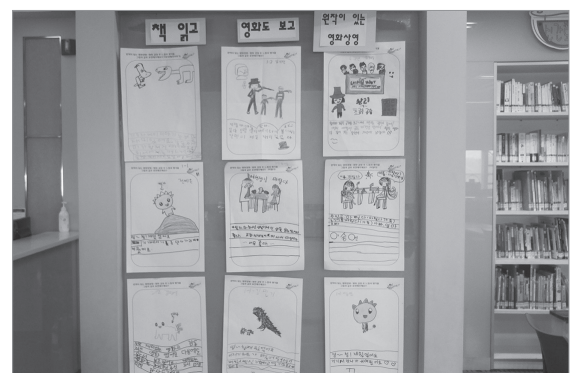
우리 학교는 여름방학에 페인트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독서교실은 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있었지만, 나는 호시탐탐 인문고전 프로그램을 해 볼 날을 고대하며 마음 한 켠에 인문고전의 방을 마련해두었다. 관련 서적도 읽고 프로그램 계획안도 짜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침 인문고전을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님의 바람을 듣고 더 더욱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24일(월) 1~3학년	25일(화) 4~6학년	26일(수) 전학년
10:00~10:10	출석체크 및 아침독서		
10:10~11:50	꽃잎 쪽지 만들기 : 너는 어떤 씨앗이니?  친구, 가족, 미래의 나에게 편지 쓰기  미리해보자! 독서골든벨 ♣ 1~3등 상품지급	명심보감, 논어  한 구절 공책 만들기 인문고전 독서 골든벨  ♣ 1~3등 상품지급	영화상영 : <모아나>  영화 감상 후 활동지에 느낌과 감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  ♣ 행복 쿠폰 1장씩 지급
11:50~12:00	정리 및 마무리		

여름방학 하기 이 주일 전 독서교실을 3일 동안 열기로 결정되었다. 드디어~~!! 아이들과 함께 명심보감을 낭송할 날이 오는구나 하며 기대에 부풀었다. 대상은 몇 학년으로 할까? 3학년? 4학년? 어떤 내용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할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학년은 4학년~6학년, 책은 명심보감, 논어로 정하였다. 이아영 관장님의 조언을 받아가며 내용을 간추려 책자도 만들고 아이들이 몇 개를 암송해올지 목표도 정하였다.

신청자 14명. 우선 아이들과 함께 몇 개씩 암송해올지 목표를 정하였다. 소박하게 1개부터 야심차게 10개 까지~~!! 아이들이 열심히 외워 오리라 기대하며 골든벨 ppt자료부터 명심보감, 논어 중 꼭 아이들이 익혔으면 하는 문구를 선정하고, 골든벨 ppt 자료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일을 했다. 그건 바로 골든벨 우수자에게 시상할 상품이었다. 거기다 필사노트를 만들기 위해 대봉투, 복사지 이면지를 구하기 위해 학교 선생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미리 자르고 접어서 아이들이 쉽

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 드디어 독서캠프 당일, 목표량을 못 외워온 아이들도 있었지만, 성실히 외워온 친구들이 많아 뿌듯했다. 우선 목표량 달성한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주고~~ 모두 함께 큰 목소리로 낭송하고 나니 아이들이 거의 다 외울 정도가 되었다. 역시 낭송의 힘! 옛날에 왜 서당에서부터 낭송을 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두두 두두~~~골든벨을 실시하였다. 문제를 보고 곰곰이 생각하다 답을 적기도 하고 아깝게 틀리면 아쉬워도 하고, 모두 즐겁게 골든벨을 마쳤다. 다음엔 필사공책 만들기. 자원봉사 학생이 3명이나 투입되었지만, 역시나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옛날 책을 조금 퓨전식으로 4침법으로, 앞표지에는 그림이나 글을 쓰고 마끈으로 묶었더니 멋진 나만의 공책이 만들어졌다. “선생님~~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제 것도 봐주세요. 저도요. 저도요~” 이렇게 애써 만든 공책 정말 멋지지요?



# 놀이와 탐구로 해보는 독후활동

- 안태련(흑룡강성 오상시조선족중학교 도서관담당교사)



닭의해

흑룡강성 오상시조선족중학교는 1948년에 건립되어 69년이란 역사를 갖고 있는 흑룡강성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조선족중학교입니다. 현재 초중 교원 36명, 고중 교원 35명 포함 71명 교직원과 초중 학생 83명, 고중학생 91명 포함 174명의 학생이 있는 완전 중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은 2013년 11월 8일, 한국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단체와 오상시 교육국의 지원 하에 설립되었고 학교도서관은 2층 중심지에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과 다양한 자료가 어우러진 카페식으로 된 도서관입니다.

개관 이래 학교지도부의 지지와 사서선생님의 노력 하에 여름방학기간을 리용하여 4차의 1박2일을 행사를 진행하여왔고 매 학기마다 한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독서활동과를 내놓았습니다. 학교 도서관은 미래의 작가, 화가, 요리사, 배우 등등을 배양하는 곳,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 학생들이 마음껏 즐기고 마음 편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 때로는 독서실, 때로는 주방, 때로는 침실로 자주 얼굴을 바꾸는 공간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시조선족중학교에서는 지난 5월 학기중간 독후활동을 가졌다.

7학년에서는 '놀이로 마음나누기'란 주제로 제1부에서는 <이상한 할머니> 그림책을 읽고 둘이 하는 실뜨기와 혼자 하는 실뜨기 세계 경험하기, 2부에서는 <윙윙 실뿔이가 돌아가면> 그림책을 읽고 내 손로 만드는 놀이감, 실뿔이 만들어 돌리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리에니와 윤수진은 그림책을 아주 잘 읽었고 듣는 학생들도 집중해서 잘 들었다. 놀이를 할 때 학생들은 아주 즐거워했는데 실뿔이 돌리기를 할 때 립수미학생은 몸을 흔들며 춤동작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놀이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맺음을 배워나갔다. 이렇게 놀이는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탐색하고 세상을 배우



닭의해

는 과정이며 스스로 깨쳐가는 배움의 과정으로 부상하였다.

8학년에서는 "닭띠 해에 닭을 논하다"는 주제로 닭띠에 관한 지식연구로부터 2017년 국가대사를 연구하였고 닭의 기본특징, 닭의 품종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닭에 관한 책을 읽고 5권의 책 추천하기, 시 쓰기, 신문만들기, 북아트 등 독후활동을 가졌다.

<마당을 나온 암탉>, <암탉 한 마리>,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수탉의 세상구경>이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발표하였다. 외국우화를 읽고 <수탉과 여우> 과문극을 만들어 표현을 하였다. <닭들에게 미안해>(김은영)란 시를 읽고 모방시 짓기를 하였는데 "부모에게, 친구에게, 식물에게, 동물에게 미안하다"는 다채로운 모방시가 나왔다. 닭과 관련된 언어 연구부분에서는 성구속담을 리용하여 재담을 만들어서 표현을 하였으며 <난, 황금알을 낳을거야>란 책을 읽고 황금알 북아트를 만들어서 책을 소개하고 자신의 꿈을 소개하였다. 그 외 닭에 관한 우표, 길상물, 중국의 서비홍의 그림과 조선시대 변상벽의 그림을 수집하였고 두 학생이 닭의 그림을 그렸다.

이번 활동에서 학생들은 한국의 민담, 한국의 민화, 중국의 고사성어, 동화, 우화 등 포함 17권의 닭에 관한 책을 읽고 여러모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바 전통혼례에 닭이 오르는 리유, "꼬끼오"에 담긴 뜻, 닭에 관한 꿈, 닭 요리, 닭에 관한 우표, 길상물, 중국 서비홍



실뜨기



닭의해

의 그림과 조선시대 변상벽의 그림을 찾는 등 내용범위가 넓고 형식이 다양하였다. 학생들은 총화부에서 우리가 흔히 먹고 보던 닭에게 이러한 문화가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고 닭에게 이러한 심오하고 깊은 뜻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꾸다, 드디어 알을 낳다>를 읽고 채색달알 그리기를 하고 닭알에 꿈을 써서 매달아보는 활동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쉬웠다.

### <모방시>

#### 부모님께 미안해

-류나영

매번 방문을 열면  
일이 힘들어서 방에 누워  
주무시는 부모가 보인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잘 살게 하려고  
외국에서 일하시는 부모  
아파도 병원에 가지지 않고 약만 드시는 부모

그런 부모님을 보면 내 마음이 싸~하다.

내가 너무 못한 거 같은  
생각이 들어  
정말 부모님께 미안하다.



실뜨기

# 사서가 권하는 책

학교넷에서는 새로운 책들을 알려려는 출판사들의 책으로 증정 서평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받아본 선생님들은 짧게도 길게도 서평들을 보내오십니다. 이번엔 그 가운데 10편을 골라 보았습니다. 사서들의 자유로운 글쓰기는 자신감으로 연결되어 이용자들을 향해 친절한 울림이 되어 퍼져 나갑니다. 서평쓰기에 도전한 선생님들의 부지런한 용기에 감사를 보내며 더 많은 분들이 용기내시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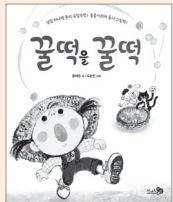
**아홉 시에 뜨는 달**  
데보라 엘리스 글, 김미선 옮김  
내인생의책 | 2016년 12월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아름답고 아픈 사랑은 소녀들의 편지를 통하여 가슴에 조마조마하게 와 닿는다. 중동 이란에서 일어난 일이다. 독재정권아래 학교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 소녀들은 당당히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 소녀들은 교육을 받아 생각의 힘을 얻게 되면 자신의 의견을 갖고 생활할 수 있음을 안다. 이 놀랍고도 아름다우며 천사같은 소녀들은 같은 심장으로 같은 목소리로 같은 감정을 담아 사랑을 나눈다. 그러나 이곳은 아직 그런 사랑을 받아주는 곳은 아니다. 동성애이기 때문이다. 그 끝을 짐작하고 싶지 않다. 9시에 빛나는 달처럼 바라보고 싶을 뿐이다. 참된 사랑을 꿈꾸는 청소년들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주상태(서울 중대부속중학교 교사)



**나의 첫 사회생활**  
월어린이지식교육연구소 글, 김정화 옮김  
길벗스쿨 | 2017년 1월

아이의 입학에 앞두고 걱정되는 마음에 이런저런 당부를 하게 된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지지 않는다. <나의 첫 사회생활>은 이런 엄마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학교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단어 뜻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고, 화장실-급식실 등의 사용 방법도 그림과 함께 자세히 알려준다. 단체생활에서 중요한 위생과 예의 범절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삽화가 자세히 수록되어 있어 글자를 모르는 어린이들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속표지에 책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부족한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책을 활용할 수 있다.  
-김현숙(인천 박문초등학교 사서교사)



**꿀떡을 꿀떡**  
윤여림 글, 오승민 그림 | 천개의바람  
2017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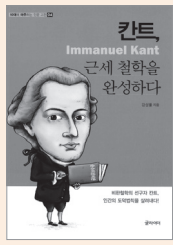
한글을 배우가는 1학년 아이들 그리고, 한글에 익숙해져가는 저학년 아이들에게 띄어쓰기와 함께 헛갈리는 것이 동음이의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헛갈리기 쉽지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익혀야 하는 단어들을 아주 재미있고 쉽게 상황에 맞추어 익힐 수 있어서 어른인 저 또한 이해를 다듬을 수 있었던 그림책이었습니다. 단어마다 같은 뜻은 같은 색, 다른 뜻은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지는 세심한 배려 부분도 느낄 수 있으며, 글에 집중되어지지만 어우러지는 그림으로 함께 미소가 지어지며 책장을 넘길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마지막 부분에는 단어마다 다른 정확한 뜻을 수록하고 있어서 그림책을 한번 다 읽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짚어보고 다시 한 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애(김해 경운초등학교 사서)



**철학콘서트 1**  
황광우 글, 김동연 그림 | 생각정원  
2017년 2월

철학콘서트 1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에서 동양 철학자인 노자까지 총 10명의 동서양 철학자 사상을 재미있고 쉽게 풀어서 담아내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외모에서부터 그의 사상,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들어간 그가 왜 독배를 들었는가를 한 챕터에 담아내었다.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철학자의 그림까지 곁들여 더욱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토머스 모어의 '내 수염은 반역죄를 짓지 않았네'였다. 영국의 대법관이었던 토머스 모어. 단두대에 올라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그의 신념, 그리고 여유와 웃음. 고등학교때 무조건 외웠던 토머스 모어와 유토피아란 그의 책을 통해서만 알았던 모어의 일생을 구체적이고 재미있게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이은영(고양 백마초등학교 교사)



**칸트 근세철학을 완성하다**  
강성률 글 | 글라이더 | 2017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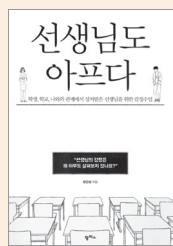
이 책을 읽고 나서 <순수이성비판>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들 너무 어렵다고 했던 책이라, 읽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칸트를 이해하고 나니, <순수이성비판>에 도전할 용기가 생겼다. 이 책의 첫 파트 칸트의 생애는 배울 것이 많았다. 끊임없는 사고와 꾸준한 학문의 전진.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 이 모든 것을 극복한 칸트는 집요한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늦은 57세에 걸작 <순수이성비판>을 내놨다. 이 책의 다른 두 파트는 <순수이성비판>의 탄생과 역사적 배경을 다루고 있는데, 철학적 지식 없이 처음 접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대충 설렁설렁 읽고 책장을 덮었는데도 남는 게 많았다.  
-권혁정(나무처럼 편집팀)



**내일**  
시릴 디용, 멜라니 로랑 글, 뱁상 마에 그림  
한울림어린이 | 2017년 1월

여름 장마가 개인 오후, 청명하고 파란 하늘이 투명하게 다가옵니다. 앞으로는 점차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여름 계절을 제외하고, 우중충한 잿빛 하늘이 더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파

연 어떤 하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환경오염에 관한 재미있고 특별한 루와 파블로 가족의 여행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루와 파블로는 환경오염의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덴마크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지역 화폐경제, 민주주의, 핀란드 공교육 등 여러 나라의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배움'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할 우선 과제임을 깨닫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루와 파블로처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모여 만드는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내일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박세지(광명 안서초등학교 사서)



**선생님도 아프다**  
양곤성 글 | 팜파스 | 2017년 2월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금, 선생님들은 모두 본의 아니게 역압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말에 백프로 아니, 이백프로 공감하면서 그 문장 안에 한참을 머물러 있었다. 모든 책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이고 또한 나의 동료의 이야기인지라 쉬어가며 읽을 수 없었다. 교사를 분노케 하는 아픈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보다 더 아픈 부모들을 만나면서 겪었던 나의 여러 가지 힘듦, 때로는 회피, 우울들을 직면하고 마주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내가 겪을 수 있는, 혹은 내 무의식속에 자리 잡았을 여러 가지 상처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며, 늘 곁에 두고 읽으면서, 예방주사처럼 감정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의 책이다. -김경애(따주 동패중학교 교사)



**아몬드**  
손원평 글 | 창비 | 2017년 3월

'공감 불능 사회, 차가움을 녹이는 아몬드' '영화보다 강렬한, 드라마처럼 팽팽한 한국형 영어덜트 소설의 탄생!' '창비 청소년 문학상' 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충분히 읽기를 재촉하고 있었다. 웬지 잡는 순간 잠을 설치며 완독할 것 같아서 일주일 가 방 안에서 아끼며 꺼내지 않다가 책장을 펼쳐 들었다. 역시나 생각대로 한순간도 손에서 놓지 않고 마지막장을 덮었다. 윤재의 삶도 궁금했지만 곤이의 행로가 더욱 궁금해서 자꾸만 책장이 넘어갔다. 감정을 느낄 수 없게 태어난 윤재는 모든 감정을 배워야 한다. 당연히 공포심이라는 감정도 모른다. 공포심이 없으니 용감해서 좋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두려움은 생명 유지를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이다. 두려움을 모르는 윤재가 어떤 사태에 뛰어드는지 알게 된다면 더욱 놀랄 것이다. 어느 날 윤재는 세상에 혼자가 되었다. 엄마는 식물인간처럼 누워 버렸고, 할머니는 죽었다. 그것도 윤

제가 보는 앞에서, '그 남자는 왜 그랬을까?' 아무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윤재는 이런 물음을 되뇌다. 그런 윤재 앞에 곤이 나타난다. 곤이는 감정이 풍부하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다. 윤재에게는 '너는 특별하다.'라고 말해주는 할머니와 엄마가 있었지만 곤이에게는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어른이 한명도 없었다. 오히려 곤이를 자극하고 몰아세우는 어른들만 있을 뿐. 그래서 곤이는 철저히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 주겠다고 다짐한다.

아이들 한명 한명은 다 참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하여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고 무기력해진다. 감정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마음의 문을 닫아 감정을 털려야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간다. 감정은 이토록 아이들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의 관계란 결국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렇기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윤재가 곤이를 구하기 위해 위험 속까지 뛰어 들었고. 그 믿음이 감정을 만들어 내어 몸속 어딘가에 존재하던 독을 터뜨린 것이었으리라.

-이현애(황성 현천고등학교 사서교사)



### 길놀이-새날을 열자!

노을 글 | 반달 | 2017년 2월

우리 조상들은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고, 다함께 놀이판에 참여하며 흥을 돋우기 위해 길놀이를 펼쳤다. 이 책에는 각양각색의 사람과 동물들이 풍물소리를 따라 모이고,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이 실감나게 그려진다. 덕수궁 대한문에서 시작하여 숭례문 광장에서 마무리되는 길놀이의 여정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덩달아 같이 한바탕 논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역동적이고 섬세한 그림, 사뿐사뿐 걷다가 힘차게 뛰고 휘휘 돌면서 고조되는 분위기에 실제로 서울 한복판에 커다란 놀이마당이 펼쳐지는 신나는 상상을 하게 된다. 위로, 옆으로 활짝 펼쳐 보는 장면에서는 모든 생명이 건강하고 평

화롭게 어울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겨있다. 그 귀하고 맑은 기운이 온누리에 널리 닿으면 정말 새날이 열릴 것만 같다.

본문 뒤에 나오는 풍물 이야기는 여러모로 유용하다. 풍물의 종류, 풍물패에 나오는 지배와 잡색, 장단의 종류 등이 소개되어 있다. 소재 자체가 낯선 독자에게, 뭔가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했던 독자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된다. 부록을 읽고 나면 작은 그림 하나하나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소개된 여러 가지 연희와 전통놀이를 본문 속에서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풍물패를 제대로 접해 본 적이 없는데도 이 책을 읽으며 장단을 입으로 흥얼거릴 수 있었던 까닭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웅기종기 둘러앉아 배운 장구 가락 덕분이다. 사소하더라도 몸으로 경험한 기억이 또 다른 만남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언젠가 음악시간에 아이들과 영남가락 '별달거리'로 같이 놀아본 적이 있다. 서툴러도 흠뻑 신명을 즐기던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체험조차 표준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아이들이 우리 장단의 맛을 몸으로 누리는 순간을 만나길 바란다. 나 역시 생생한 현장에서 길놀이에 푹 빠져보고 싶어진다. 그리고 나면 이 책에 더 깊이 스며들 수 있겠지. -박샘(서울 일원초등학교 교사)



### 코스모스 스쿨

#### 3. 지혜의 별 코모성

안재희 글, 박바퀴 그림  
고래가숨쉬는도서관 | 2017년 3월

책을 받아든 순간, 지은이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였다. 고궁 처마에 자리잡고 있는 잠상인 어처구니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우연히 발견하고 너무도 반가워 바로 반해버린 책 「숭례문에서 사라진 어처구니」과 지은이의 또 다른 책을 찾다가 발견한 「돌무더기」의 지은이 안재희 님이었다. 그 분이 쓰신 책이어서 더욱더 반갑고, 무슨 내용인지 기대가 샘솟았다.

6학년 아들이 책의 마지막장을 덮자마자, "엄마, 이 책이 3권이니까, 4권도 있겠네요?"라는 물음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 아~ 새로 나온 책이라 4권은 아직 안 나왔는데…… 참, 1권, 2권이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찾아서 읽어보자~" 후속편을 기대하는 것을 보니 아주 재미있었던 모양이다. 이 책 덕분에 기분 좋게도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을 책이 늘었다.

다음은 함께 읽은 6학년 아들의 감상문이다.

이 책은 마왕성에 사는 왕, 블랙컨이 등장한다. 블랙컨은 다른 사람의 것, 특히 다른 별들이 개발한 첨단기기를 보면 참지 못하고 달려든다. 그래서 그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이 많다. 그렇게 사이코의 대표격인 블랙컨에게는 외아들인 마이클이 있다. 마이클이 좋아하는 유소린이 마이클의 마음을 거절하니까 블랙컨은 유소린을 협박하고, 유소린이 가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이클도 사라진다. 시간이 흘러 마이클의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헤즈라는 아이가 코스모스 스쿨에 입학한다. 그 곳은 다양한 행성의 아이들이 우주에 대해 배우는 곳이다. 1년 동안 배우고 1학년이 끝나자 독수리 비행을 가는데 드론이 주니를 납치한다. 그렇지만 헤즈가 주니를 구해내고 수학여행을 떠난다. 망토성에는 헤즈의 할아버지인 망토 할아버지는 없고 어떤 남자만 있다. (4권에 계속……)

이 책을 읽으면서, '우주는 숫자보다 기호로 이해해야 한다' '모든 존재는 고유한 속성이 있다'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된다'와 같은 좋은 말들을 알게 되었다.

그 동안 우주를 수학적·과학적으로 읽었던 책들과는 달리 이 책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았다. 시리즈 책이기도 하겠지만, 이 책만 읽으면 너무 궁금해서 아쉽다. 나중에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찾아보아야겠다. -임경순(광명 광성초등학교 사서)·공요한(아들)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29(서패동) 2층  
전화 031-955-9680 팩스 031-955-9682 이메일 goraebok@naver.com



## 코스모스 스쿨 4. 붉은 구름 때

안재희 글/박바퀴 그림/152×225mm/180쪽/11,000원/초등학교 중학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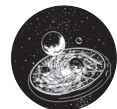
### 지구에서 코모성까지! 우주 여행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보내는 이야기!

포마 대학생 헤즈는 코스모스 스쿨에서도 수업을 받으며 대학 생활을 병행하게 됩니다. 한편 우주를 장악하고 싶은 블랙컨은 악의 무리들을 연합해서 우주 전쟁을 치를 계획을 세웁니다. 납치된 과학자들에게 코모 위치를 만들게 하고 새로운 드론을 만들어 헤즈를 유인하려고 합니다. 회색 무리의 대장인 아틀린이 블랙컨과 합류하여 코모성을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헤즈는 친구들과 헤즈 탐사대를 재결성하여 코모성을 지킬 계획을 세웁니다.



#### 코스모스 스쿨 시리즈

1. 헤즈의 요술 안경 / 2. 헤즈 탐사대 / 3. 지혜의 별 코모성
4. 붉은 구름 때 / 5. 시간의 소용돌이 / 6. 별들의 무덤
7. 반아선의 비밀 / 8. 창조 놀이터



# 2017 학도넷, 중국 속 우리역사·문화탐방

8월 7일부터 12일까지 학도넷은 두만강에서 압록강까지 우리 지도 맨 윗부분을 따라 중국 속의 우리 역사와, 우리 문화와 그 곳 우리 동포를 만나러 갔다. 서점, 도서관, 학교도서관, 항일 유적지, 고구려유적지, 백두산, 운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은 운동주의 흔적을 찾았다. 우리 민족의 옛 터전을 돌아보며 역사 의식과 민족 의식을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 <다녀온 곳>

- 2017년 8월 7일~12일/학도넷 탐방객 13명
- 1일 : 도문국경(두만강) 연길(신화서점, 연변대학교)
- 2일 : 용정(연길어린이도서관, 일송정, 운동주 생가, 대성중학교)
- 3일 : 이도백하, 송강하, 백두산 서파 등정
- 4일 : 집안(광개토대왕비, 장수왕릉, 환도산성, 오회분5호묘, 국내성터)
- 5일 : 단동(단동시 조선족중학교도서관, 압록강, 단교, 호산장성, 이룡양행)
- 6일 : 918기념관, 심양고궁

## 우리 선조의 얼을 한걸음 한걸음으로 되새기다

박영옥(학도넷 운영진)

여행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욕구와 경험을 공간적, 시간적으로 누리기 위해 떠난다. 이번 여행은 '중국, 역사·문화탐방'이란 주제로 문화적, 인문학적 접근이었다. 여기서 '중국'이란 지리적 위치가 현재 중국일 뿐이다. 속내는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역사적 탐방이었다.

도문을 시작으로 연길, 용정, 백두산, 집안, 단동까지, 지도상에서 보면 북한과 중국 국경인 두만강 하류에서 백두산을 거쳐 압록강 하류의 동선을 따라 간다. 집안에서부터 단동까지는 압록강을 따라 북한의 만포에서 신의주를 원편에 두고 이어졌다.

비암산 일송정에서 바라본 서전대야에서는 1만 여 명이 참가한 3.1만세운동의 함성이 들리는 것 같다. 이후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된 용정, 해란강을 품에 안은 비옥한 논밭에는 이곳에 터를 잡기 위해 지난한 삶을 살아야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른 거린다.

항일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최초의 민족학교인 서전서숙의 흔적, '선구자'의 노래 속에 나오는 비암산에 올라 용정을 바라보고, 용두레 우물을 들여다 보고, 용문교를 지나가고, 용주사 터를 확인하며 모진 풍파를 견뎌낸 선조의 숨결을 느껴본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도, 학교 담장에, 낡은 건물에도 서려있을 수난과 굳은 의지의 역사, 항일 운동의 현상이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가지 못하게 발걸음을 잡는다.

연변대학교내에 있는 '항일무명영웅기념비'는 중국은 부지를, 북한은 돌을, 한국은 건립비용을 부담한 의미 있는 기념비다. 이 비의 중요성은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친 이름 없는 이들을 기념한다는 데 있다. 그것도 '영웅'이란 이름으로……. 비 앞에서 숙연해진다.

여행 내내 우리 옆에서 북한 땅을 떼어낼 수 없었다. 중국도문변경에서 바라본 북한의 초록의 산등성이 는 자세히 보면 경작지다. 산꼭대기까지 다락밭을 일 구였다. 남양시의 4, 5층 중도되는 붉은 지붕의 연립 은 사람이 사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생기가 없다. 집안의 압록강 '국가수리풍경구'에서 바라본 북한 땅 역시 8월일 지금은 경작지여서 푸르게 보이지만 경 작이 끝난 겨울에는 황폐한 모습만 남는다고 한다. 서울에서 몇 시간이면 갈 곳을 먼 거리를 에둘러 가 서 봐야하는 북한 땅을 만나는 감회는 한숨을 같이 한다. 압록강의 맑고 푸른 물결에 비친 북한의 초록 빛 산야가 겨울이 되어도 그 모습을 간직할 날이 언 제일까?

2002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동북공정은 중국의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역사라는 주장아 래 고구려를 중국역사로 편입시키려하고 있다. 이런 흔적은 고구려 유적지의 해설안내판에서도 볼 수 있다. 해설은 5가지 언어로 되어있는데, 이 곳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중국인 다음으로 한국인이 많은 텐 데도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순으로 되어 있다. 더구나 입장 티켓은 중국어와 영어로만 되어있다. 이 순서에서 한국어의 위치가 바뀌는 날 고구려는 버젓이 중국의 역사가 되어있지 않을까하 는 우려가 바짝 긴장하게 만든다.

광개토대왕비는 중국인들이 부르는 '호태왕비'로 새겨져있고, 고구려의 박작성성은 호산장성으로 바뀌었고, 이 곳에는 '만리장성동단기점(萬里長城東端 起点, 만리장성 동쪽 끝 시작점)'이란 빨간색 플래카드가 선명하다. 이로서 중국은 만리장성의 길이를 6,300km에서 8,851km로 연장시켰다.

그 당시 우리민족의 교육과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던 김약연, 우리 독립운동을 도운 아일랜드인 조지 엘 쇼와 이룡양행, 운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발간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념문제로 묻힌 강처 중, 일본군을 벌벌 떨게 했지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후 극장경비원으로 쓸쓸한 생을 마감했던 홍범 도, 신념으로 행동한 이들의 굳건함이 이 여행의 목 적이 된,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안내하며 민족에 대 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 연변화동의 안금송선생 님께 감사드린다.

## 시간을 가로지르는 도서관 여행

중국 연변주 조선족 자치주 연길시  
소년아동도서관을 다녀와서

김동헌(여주시 시민사서)

8월 8일 오전 9시 흐린 가을 하늘 같은 날씨, 연길시 소년아동도서관을 방문하였다.

도서관 입구에 전시되어있는 『뿌리지 뚱』 등 몇 권의 익숙한 그림책을 만나니 반가웠다.

도서관 소개를 해주시기로 한 이옥화사서님은 도서관 평가팀이 전수조사 나오는 날이라서 무척 분주 해 보였다. 도서관 평가의 기준을 물으니 방문자 수, 장서 수 등은 우리랑 비슷했지만 대출권수에 대한 평가는 항목에 없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생각 했다.

연길시 소년아동도서관은 전국문화부 도서관평가에서 연속 5차례 '국가1급도서관'으로 상을 받았으며 '독자들이 사랑하는 도서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이옥화선생님께서 자존감 넘치는 열정적인 사서의 얼굴을 보았다.

학도넷에서 준비한 『엄마마중』 그림책 등 한국어책 을 김경숙대표가 선물로 드리고 어린이실 그림책자 료실로 이동하였다. 이동하던 중 벽에 걸려있는 직원 현황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

1982년 길림성에서 최초로 건립된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연변 자치주 유일의 어린이 공공도서관이라 서 그런지 내가 근무했던 여주시립도서관과 비교해 볼 때 규모는 절반인데 직원은 3배가 많았다. 조선 족 22명을 포함하여 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 다. 사서라면 누구나 꿈꾸는 현장수서(실물수서)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며 마냥 부러웠다. 개인적으로 공 공동서관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왔던 터라 문화행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무척 궁금했다. 독서 감상화그리기, 스토리텔링하기, 생활 속의 과학, 그림 책 도서실, 저자강연회, 글쓰기 등 20여개의 프로그 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국의 프로그램과 비슷하 다고 생각했다.

요즈음엔 책을 읽고 글쓰기까지 연결하는 프로그램 에 공을 들인다는 얘기를 들었다. 독서동아리가 있 느냐는 질문에 아쉽게도 책모임이 있지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안타깝다는 대답을 들었다. 다

음에 기회가 되면 책모임 성공비결을 공유하고 싶다. (사실 책모임 성공비결은 자주 만나서 서로가 사는 얘기를 자주 나누며 책 속 내이야기를 공유하면 성공하는데……)

서가에 꽂혀있는 책들을 보다가 『고리끼전』이라는 1970년대 출판된 책에서 권장도서목록을 발견하였다. 20년은 족히 넘어 보였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서 보낸 그림책에는 원래 한국에서 사용하던 레이블이 그대로 부착된 채 서가에 꽂혀 있고 보림출판사에서 펴낸 슬거나라(전통문화그림책시리즈)는 얼마나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너털너털하게 남아있었다. 피터 래빗 그림책 전권이 중국어 그림책으로 배가 되어 있었고 그곳에서도 엄마들한테 만화도서가 구박 받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웃음이 나왔다(만화가 무슨 죄람……).

큰 창과 높은 층고로 자연채광과 통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길시 소년아동도서관과는 다르게 한 낮에도 전등을 켜 놓고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는 '한국의 도서관은 너무 기계적인걸까?'라는 속생각을 했다.

## 천상의 화원 백두산

김지순(성남 창성중학교 사서)

아직도 그 감동과 설렘이 살아있는 높이 2744m의 백두산 절경을 소개하고자 한다. 백두산 서파를 택하여 굽이굽이 놀이기구를 타듯이 버스로 30여분을 이동한 뒤 도보로 나무계단 1,442개를 걸어서 올라갔다.

등산길은 오이풀, 각시투구꽃 등 야생화가 손을 흔들며 반기고 화려한 인력거와 수백명 인파의 열기덕분에 힘든 줄 모르고, 오를 수 있었다.

드디어 정상에 올랐을 때 앞쪽에는 천지가 영화처럼 펼쳐졌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깊고, 감동적이었다.

그 물결은 마치 군데군데 쪽빛 물감을 뿌려놓은 듯 맑고, 잔잔했으며 그 색깔은 수시로 변하는 구름모양과 함께 슬라이드 쇼를 하는 듯 춤을 추었다.

“이것이 꿈이 아니죠?”

“그렇게 그림으로 많이 보았던 그 백두산 맞아요?”

“와~~ 저 산위에 구름 좀 보세요. 고래였다가. 호랑이였다가”

한참을 감상에 젖어 있었다.

“저기 물속에 과연 무엇이 살까?”

“이 백두산으로 소풍을 오는 날이 언제일까?”

“언제나 평양냉면을 시원하게 먹는 날이 왔으면~~”

여러 가지 상상들이 밀려왔다.

잠시 인파에 밀려, 등을 돌려보니 이곳이 함경남북도와 길림성의 접경지대임을 말해주듯 한쪽에는 조선, 반대쪽에는 중국으로 표기된 비석이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비경을 감상 할 수 있도록 백두산 천지의 물결 한을 한을 마다 염원을 담고 왔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 우리 여행은 우연이 아니야~

### 그것은 운명이었어

문원림(호락호락 한국사 저자)

우리들의 역사탐방여행은 운명 바로 그것이었다.

인천공항에서 처음 만난 13명의 사람들이 어쩔, 낮 가림도 없이 웃고 떠들며 하나가 되던지 우린 그냥 오래전부터 친구였던 거다. 만나야 할 사람들이 다시 만난 것처럼…….

국경의 강들이 그러하듯 짙짙한 햇빛 아래 부드럽게 흐르는 두만강도 수많은 사연을 품고 감동과 아픔으로 다가왔다. 용정은 100여 년 전의 투사를 다시 맞듯이 안개구름으로 우리를 감싸 안았고 경숙샘의 일송정 푸른 솔 노래는 어제인 듯한 그날의 맹세였다. 윤동주 생가에 내리던 여우비는 최고의 바리스타, 맑고 고운 풍경은 수줍게 웃는 윤동주였다. 저 마당 어디에선가 우리도 동주와 함께 웃었을 거다…….

끝이 없을 것 같은 나무계단을 조급한 마음으로 올라 마주했던 백두산 천지는 아~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온전히 제 몸을 다 열어준 것에 그저 눈물로 고마워했을 뿐이다.

1500년 늘 그 자리 광개토태왕릉은 이제 중국의 과보호로 유리벽에 갇힌 호랑이가 되었고 다 허물어진 태왕릉은 때때로 돌이 굴러 내렸다. 그러나 6미터가 넘는 과묵한 호태왕비와 반듯한 능의 돌은 언젠간 다시 포효하는 날이 오리라는 귀엣말로 울먹이려는 등을 토닥였다. 동방의 피라미드 장군총은 더 이상 이름 모를 어느 장군의 무덤이 아니다. 광개토태왕릉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한 당당한 장수왕의 무덤이다.

장수왕릉은 늠름함으로, 고구려 고분벽화는 물기 속에서도 건디는 천년의 빛깔로, 단단히 들여쥔 환도성은 장대함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었다. 바람 한 점 없는 집안의 고구려는 그렇게 또 한 번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

끝없이 펼쳐진 압록강의 노을은 풍요롭고 찬란했으나 보트에서 누빈 한 낮의 압록강은 소리만 즐거운 슬픔이었다. 오래된 걸끄런 동족의 씨익 웃는 하얀

이가 반갑고도 무섭다니…….

2017년 8월 우리의 민낯이 부끄럽고, 치졸하고 서러워 쪼끔 울었다. 저 우리도 진즉에 벌써 우리였어야 했다.

감동이 넘치는 역사 스토리텔링을 들으며 오래된 친구 같은 사람들과 광활한 만주 벌판을 누빈 이번 여행은 먼 옛날 이미 함께한 추억을 확인한 운명 같은 만남이었다. 투명한 날씨마저 효과로 기획된!

## 어른들과 함께한 고구려 여행

양재웅(녹천중학교 2학년)

어머니의 추천으로 학도넷 동북3성 우리역사 여행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문화유적지 정도만 답사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연변화동 대표님이신 안금송 선생님께서 우리역사이야기를 정말 잘해주셔서 정말 어디서도 경험하기 힘든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고구려 유적, 백두산, 근대항일유적들에 대해 폭 넓게 설명해 주셔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다 보니 역사의식이 더 자라난 것 같습니다.

깊숙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옆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도움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한번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 아들과 함께 옛 역사의 흔적을 찾다

오선경(학부모)

대한민국 중2 남자아이의 평범한 엄마 오선경입니다. 김진명을 좋아하는 독자로써 고구려의 '광개토태왕비'를 보러 간다는 말에 덜컥 같이 가고 싶다고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날짜가 다가올수록 걱정이 앞섰지만 중2아이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우리의 역사를 짚어주자는 거창한? 생각으로 연길 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나 두만강 푸른 물과 용정의 일송정, 백두산을 거쳐 광개토태왕비와 장수왕릉 그리고 단동의 압록강까지…… 제가 더 많은 느낌과 감동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들려주고자하신 안 선생님과 '리스펙트'를 눈빛으로 외치며 귀 기울이시던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평범한 아줌마에게 감동과 역사의식을 심어주시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해 준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행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 학도넷 소식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 학도넷 행사

- 2017년 3월 15일 학도넷 소식지 봄호 발행(통권 42호)
- 2017년 6월 10일 학도넷 창립 13주년 기념 '도서문화 토크콘서트' 및 정기총회
- 2017년 8월 7일~12일 학도넷, 중국 속 우리역사·문화탐방
- 2017년 8월 16~18일 학도넷 2017 여름사서연수 '자유로운 상상력! 이색도서관, 이색서점 탐방'

### 신입회원 (2017년 3월~2017년 8월)

**정회원** : 한은미 강정미 권시애 길영희 김리라 김소원 김정숙 남규조 문원림 서정원 신정임 안정원 이미경 이선화 김누리 김동현 신수인 이주영 조성우 최창희 김미령 박영혜 박인자 박정미 박종숙 신수인 이영희 박정은 박은하 안경애 안정원 유영숙 이선화 홍선희 라순희 이미경 홍현희

**준회원** : 이민애

**웹회원** : 채영순 노현심 김영란 문채원 최연우 꿈꾸는도서관 손은영 정광진 김보라 이은지 박정아 박찬구 최희라 서진희 최정미 이은경

### 회비 및 후원내역 (2017년 3월~2017년 8월)

#### 정회원 회비

- 매월 3천원 : 김미령 박영혜 박인자 박정미 박종숙 신수인 엄효경 이영희 조성우 최선욱 최유미 최창희 홍선희
- 매월 5천원 : 강복숙 강영미 강정미 박정은 구미숙 권도경 권시애 길미숙 길영희 김경숙(보영) 김누리 김동현 김대경 김리라 김선영 김소원 김심환 김영신 김은영 김정숙 김정윤 김정혜 김하나 김효숙 남규조 마민희 문수지 문원림 박미영 박은하 박준섭 백경숙 백연주 서정원 선보배 성주영 이혜진 성미경 송경영 송숙영 송혜영 신은미 신정임 신정화 신형란 안경애 안정원 유서연 유영숙 유정원 윤남미 이금화 이미순 이선화 이우정 이은혜 이주영 이 현 이현애 임경순 임민욱 정수연 정영희 정명하 주상태 차진미 채재현 한은미 허지연 허지은
- 매월 1만원 : 강애라 강지영 권향미 김경숙 김광재 김숙경 김은영 김순홍 김승주 김신희 김옥위 김종성 김진희 김진희 (관악) 라순희 류주형 문예원글로피아 박 샘 박영옥 박정혜 박지연 송추향 변영이 백화현 오현애 오희애 유은실 이경자 이규향 이기영 이덕주 이문숙 이미경 이영주 이찬미 장범진 정수현 정영희 정지영 정진수 조길량 조선희 조은영 조의래 허경림 황봉희
- 매월 3만원 : 도서출판 북극곰, 고래가숨쉬는도서관
- 연회비 : 박세지(6만)

#### 준회원 회비

- 매월 : 김민형(2천) 김송요(2천) 김송현(2천) 손은상(2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송권형(1천) 이재희(2천)
- 총회행사후원 :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50만) 청소년출판협의회(10만) 백화현(10만) 안덕희(3만)

**정기후원** : 문학동네(매월 20만)

**인세후원** : 코스모스스쿨3 고래가숨쉬는도서관(저자 안재희 인세후원) 32만

**광고후원** : 제2회 전국어린이독서감상문대회(50만원)

###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다시, 봄봄(단비)/ 21세기 청소년 인문학1, 2(단비)/ 국기에 그려진 세계사(뜸새책방)/ 한그루 나무를 심으면 천개의 복이 온다(사유)/ 소설로 읽는 한국현대사 광장에 서다(별숲)/ 스트로 베리베리 팡팡(북극곰)/ 칙칙폭폭 동물기차(북극곰)/ 열일곱살 자동차(낮은산)/ 아무도 모르는이야기 사과나무숲(사유)/ 초등출력독서(글라이더)/ 이토록 어여쁜 그림책(한미화)/ 구성구석

박물관(빨간소금)/ 왜 생일케이크에 촛불을 켜까?(초록개구리)/ 10대에 댄서가 되고 싶은 나, 어떻게 할까?(오유아이)/ 이오덕의 글쓰기(양철북)/ 옛날 옛적 낫날 갖적1, 2(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재미있는 이야기(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책읽는 기쁨, 읽어주는 즐거움(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남녀차별은 왜 생겨났나?(구름서재)/ 인간들은 왜 신을 두고 싸우는가?(구름서재)/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철수와 영희)/ 어느 조용한 일요일(글로연)/ 엄마가 말이 됐어요(듬뿍)/ 야호(북극곰)/ 아이고 내 코(북극곰)/ 신체호 말꽃오름(단비) / 지구별망, 작은 것들의 역습(단비)/ 내가 덕후라고?(단비)/ 복사꽃 외딴집(단비)/ 아토믹스(2마음을 읽는 소녀)비룡소/ 스무고개탐정8(비룡소)/ 우리는 슈퍼히어로즈(키위북스)/ 엄마는 해녀입니다(난다)/ 할머니의 장난감 달달달(문학동네)/ 꿈을 지키는 카메라, 누군가의 마음,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옥수수 뽕소니, 림 로드, 미식예찬, 푸룬파 피망, 라면은 멋있다, 이사(창비)/ 도토리모자(북극곰)/ 우리 가족이에요(북극곰)/ 세계화 무엇이 문제일까?(동아엠앤비)/ 보고 듣고 말하는 호락호락 한국사(몽치)/ 인간의길, 10대가 묻고 고전이 답하다(글라이더)/ 플로팅 아일랜드(비룡소)/ 실험실에서 만든 햄버거는 무슨 맛일까?(초록개구리)/ 돼지꿈(북극곰)/ 빨강 캥거루(북극곰)/ 선생님도 아프다(팜파스)/ 아몬드, 사과가 필요해(창비)/ 새앙머리 보름이, 작은 자본론(내인생의책)/ 나의 영웅(국민서관)/ 잠자는 숲속의 어린 마녀, 지구인에게(북극곰)/ 코스코스 스쿨 3, 지혜의 별 코모성(고래가숨쉬는도서관)/ 꿀떡을 꿀떡(천개의바람)/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과학탐험대 신기한 스쿨버스 음악, 병균이 너무 싫어(비룡소)/ 칸트, 근세 철학을 완성하다(글라이더)/ 철학콘서트 1(생각정원)/ 엄마가 말이 됐어요(듬뿍)/ 별이 되기 전 머무는 집(나한기희)/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교육공동체넷)/ 어떻게 소비해야 모두가 행복할까(초록개구리)/ 안읽어 씨가족과 책 요리점(문학동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사과나무숲(사유)

나의 이스마엘(평사리) 300권

코스모스스쿨 4(고래가숨쉬는도서관) 저자기증 50권

### 소식지 보내주신 곳

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 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 책&(한국출판문화진흥원)/ 놀이하는 사람들(사)놀이하는 사람들/ 서울교육(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부산 보수동책방골목어린 이도서관소식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간개똥이네놀이터/ 동화읽는어른(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맨발동무어린이도서관 맨발동무/ 고래가숨쉬는도서관 여름호(고래가숨쉬는도서관)/ 개똥이네 놀이터(보리)

### 여름사서연수 도움 주신 곳

초록개구리출판사 : 『쓰레기통에 숨은 보물을 찾아라』 등 30권  
북극곰출판사 : 『도토리 모자』 『우리 가족이에요』 『야호』 『칙칙폭폭 동물기차』 24권  
보리출판사 : 『개똥이네 놀이터 8월호』 30권  
공동체넷 : 홍보자료

**\*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지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 2017 학도넷 여름사서연수 했습니다.

학도넷 2017 여름사서연수

〈자유로운 상상력! 이색도서관, 이색서점 탐방!〉

학교도서관의 즐거운 운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움직여 온 사서선생님들의

새로운 충전을 위한 여름연수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돌보는 도서관을 벗어나

도서관 이용자가 되어보고

책방의 고객이 되어봅니다.

그 곳을 가꾸는 아름다운 '사람책' 들의 상상력과 이용자들의 관심과 시선을 이끄는 기획력을 만나봅니다.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일정 : 2017년 8월 16일 (수)~18일 (금) (3일간, 10:00~17:00)
- 대상 : 학생과 교사, 교실과 도서관을 풍부하게 연결하고 싶은 초·중·등 사서 (교사, 담당교사, 예비사서교사 20명)

8월 16일(첫째날)	8월 17일(둘째날)	8월 18일(셋째날)
창비북카페 / 창비사옥 책씨앗 살펴보기 -김성남 선생님	그림책식당 『감기 걸린 물고기』 박정섭 작가와 함께 그림책만들기	최인아책방
이동 / 점심		
구산동도서관마을 -고정원 선생님	점심 / 이동	점심 / 이동
이동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윤성근 선생님	영신고등학교 도서관 -새롭게 변신한 도서관 -이은혜사서교사	수지 느티나무도서관 -사회를 담은 컬렉션 만나기

### 2017 학도넷 창립 13주년 기념

도서문화 토크콘서트 및 정기총회했습니다.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356201-04-173422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학도넷)